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역대하 —

황선우*

『새한글』은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되 오늘날의 현대어로 번역하여 현대의 독자들이 원문의 의미와 분위기를 잘 살려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역대하의 네 구절, 역대하 1:3, 2:1, 2:10, 6:16의 예는 『새한글』이 문맥을 고려하고 최대한 원문을 생략하지 않고 원문에 충실하며, 원문의 어순에 따라 원문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오늘날의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임을 잘 보여줍니다.

1. 역대하 1:3

1.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וַיֵּלְכוּ שְׁלֹמֹה וְכָל-הַקָּהָל עִמּוֹ לִבְמָה אֲשֶׁר בְּנִבְעוֹן כִּי-שָׁם הָיָה אֱהִל מוֹעֵד הָאֱלֹהִים אֲשֶׁר עָשָׂה מֹשֶׁה עֲבָד־יְהוָה בְּמִדְבָּר:
『개역개정』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u>산당</u> 으로 갔으니 <u>하나님의 회막</u> 곧 여호와와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새번역』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u>산당</u> 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u>하나님의 회막</u> , 곧 주님의 종 모세

* 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shwang@csu.ac.kr.

	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공동개정』	솔로몬은 자기 백성의 모든 대표단을 이끌고 기브온에 있는 <u>산당</u> 을 찾아갔다. 그 곳은 <u>하느님을 만나는 곳</u> 으로서 야훼의 종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장막이 있는 곳이었다.
『새한글』	솔로몬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온 무리가 기브온에 있는 <u>높은 곳(산당)</u> 으로 갔다. 거기에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u>하나님의 만남의 천막</u> 이 있었기 때문이다.
ESV	And Solomon, and all the assembly with him, went to <u>the high place</u> that was at Gibeon, for <u>the tent of meeting of God</u> , which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had made in the wilderness, was there.
NET ²	Solomon and the entire assembly went to <u>the worship center</u> in Gibeon, for <u>the tent where they met God</u> was located there, which Moses the LORD's servant had made in the wilderness.

1.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בָּמָה(바마)의 번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 ‘산당’으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에서는 ‘높은 곳(산당)’으로 번역하였습니다.

(2) אֹהֶל מוֹעֵד הָאֱלֹהִים(오헬 모에드 하엘로힘)의 번역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하나님의 회막’, 『공동개정』에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곳’으로 번역하였고, 『새한글』에서는 ‘하나님의 만남의 천막’으로 번역하였습니다.

1.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모두 בָּמָה(바마)를 ‘산당’으로 번역했는데 산당(山堂)은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산신을 모신 집’(『표준국어대사전』), 즉 어떤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בָּמָה(바마)를 ‘산당’으로 번역할 경우 이 절에서는 ‘산당’, 즉 어떤 구조물에 אֹהֶל מוֹעֵד הָאֱלֹהִים(오헬 모에드 하엘로힘), ‘하나님의 만남의 천막’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בָּמָה(바마)는 어떤 구조물이 아

니라 히브리어의 사전적 의미, ‘높은 곳(high place)’을 의미합니다(*HALOT*). 이 높은 곳은 또한 제사의 장소로도 이해됩니다(*HALOT*). 따라서 『새한글』에서는 **בָּמָה**(바마)를 직역하여 ‘높은 곳’으로 번역하였고 산당에 익숙한 한글 성경의 독자들을 위해 괄호에 ‘산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때 제사를 드리는 기브온의 높은 지대에 ‘하나님의 만남의 천막’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אֹהֶל מוֹעֵד הָאֱלֹהִים**(오헬 모에드 하엘로힘)은 『개역개정』, 『새번역』에서는 ‘하나님의 회막’으로, 『공동개정』에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곳’으로 번역하였는데 『새한글』에서는 히브리어를 직역하여 ‘하나님의 만남의 천막’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의 장점은 직역을 하면서도 의미를 선명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번역, ‘하나님의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개념이 약화되어 있고 『공동개정』의 ‘하느님을 만나는 곳’은 **אֹהֶל**(오헬, ‘천막’)의 개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한글』의 번역은 ESV의 번역, ‘the tent of meeting of God’과 같은 직역이며 ‘하나님의 만남의 천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천막을 의미합니다.

1.4. 『새한글』 역대하 1:3의 가르침

구약성경에서 산당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중요한 개혁의 표지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산당’으로 번역된 **בָּמָה**(바마)는 엄밀히 말하면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 ‘높은 곳’에서 우상을 섬긴다면 그곳은 우상숭배의 부정적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성막과 성전이 없다면 ‘높은 곳’ 즉, **בָּמָה**(바마)에서의 제사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1:3의 **בָּמָה**(바마)는 합법적인 제사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남의 회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절의 **בָּמָה**(바마)는 구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 뉘앙스를 지니는 ‘산당’보다 가치중립적인 ‘높은 곳’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역대하 2:1[1:18]¹⁾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וַיֹּאמֶר שְׁלֹמֹה לְבָנוֹת בֵּית לַשֵּׁם יְהוָה וּבֵית לְמִלְכוּתוֹ:
『개역개정』	솔로몬이 <u>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u> 을 건축하고 <u>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u>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새번역』	솔로몬은 <u>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u> 과 <u>자기의 궁전</u> 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공동개정』	솔로몬은 <u>야훼를 모실 성전</u> 과 <u>자기의 궁전</u> 을 짓도록 명령하고
『새한글』	솔로몬이 <u>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위한 집</u> 과 <u>자신의 왕국을 위한 집</u> 을 짓겠다고 말했다.
ESV	Now Solomon purposed to build a temple for the name of the LORD , and a royal palace for himself .
NET ²	Solomon ordered a temple to be built to honor the LORD , as well as a royal palace for himself .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בֵּית לַשֵּׁם יְהוָה(바이트 레셈 아도나이)의 번역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새번역』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 『공동개정』에서는 ‘야훼를 모실 성전’으로 번역하였고, 『새한글』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위한 집’으로 번역하였습니다.

(2) וּבֵית לְמִלְכוּתוֹ(우바이트 레말쿠토)의 번역

『개역개정』에서는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자기의 궁전’으로 번역하였고, 『새한글』에서는 ‘자신의 왕국을 위한 집’으로 번역하였습니다.

2.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새한글』에서 최대한 원문을 따르되 현대어를 사용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בֵּית לַשֵּׁם יְהוָה(바이트 레셈 아도나이)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위한 집’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1) BHS⁵, 『공동개정』은 1:18.

중 그 어떤 것도 『새한글』과 같이 직역한 것은 없습니다. 『새한글』의 장점은 이와 같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번역』에서는 יהוה(아도나이)를 ‘주님’으로 번역하였는데 『새한글』에서는 원문을 직역하여 ‘여호와’로 번역하였습니다.

(2) וּבֵית לְמַלְכוּתוֹ(우바이트 레말쿠토)의 경우도 『새한글』에서는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과 달리 원문 그대로 ‘자신의 왕국을 위한 집’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왕국을 위한 집’은 ‘궁궐’(『개역개정』) 내지 ‘궁전’(『새번역』, 『공동개정』)을 의미하지만 『새한글』에서는 ‘왕국을 위한 집’으로 번역하여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2.4. 『새한글』 역대하 2:1의 가르침

וּבֵית לְמַלְכוּתוֹ(우바이트 레말쿠토)를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개역개정』), ‘자기의 궁전’(『새번역』, 『공동개정』)으로 번역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위한 집’(『새한글』)으로 직역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집이 솔로몬 자신만을 위한 궁전의 의미를 넘어 그의 왕국 전체를 위한 왕궁의 의미를 전합니다.

3. 역대하 2:10[9]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וְהָנָה לְחֹטְכִים לְכָרְתִּי הָעֵצִים נָתַתִּי חֲטִים מִכּוֹת לְעִבְדֶּיךָ פָּרִים עֲשָׂרִים אֶלֶף וְשָׁעִרִים פָּרִים עֲשָׂרִים אֶלֶף וְיָיִן בָּתִּים עֲשָׂרִים אֶלֶף וְשָׁמֶן בָּתִּים עֲשָׂרִים אֶלֶף:
『개역개정』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쥘은 밀 이만 <u>고르</u> 와 보리 이만 <u>고르</u> 와 포도주 이만 <u>बाट</u> 과 기름 이만 <u>बाट</u> 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새번역』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곡을 주겠습니다. 밀 가루 이만 <u>섀</u> , 보리 이만 <u>섀</u> , 포도주 이만 <u>말</u> , 기름 이만 <u>말</u> 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공동개정』	채벌 기술자들에게 본인은 양곡을 대어주겠습니다. 밀 이만 <u>섀</u> , 보리 이만 <u>섀</u> , 포도주 이만 <u>말</u> , 기름 이만 <u>말</u> 을 당신의 일꾼들에게 대어주겠습니다.”

『새한글』	보십시오 , 나무 베는 사람들, 자르는 사람들 곧 임금님의 일꾼들에게는 빵은 밀 4,400킬로리터 를 내가 주겠습니다. 보리 4,400킬로리터 와 포도주 440킬로리터 와 기름 440킬로리터 도요.”
ESV	I will give for your servants, the woodsmen who cut timber, 20,000 cors of crushed wheat, 20,000 cors of barley, 20,000 baths of wine, and 20,000 baths of oil.”
NET ²	Look , I will pay your servants who cut the timber 20,000 cors of ground wheat, 20,000 cors of barley, 120,000 gallons of wine, and 120,000 gallons of olive oil.”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 (1)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이 절의 첫 단어 **בָּרֵךְ**(베히네)의 번역을 생략했는데 『새한글』에서는 ‘보십시오’로 번역하였습니다.
- (2) 『개역개정』에서는 보리와 밀의 단위로 히브리어를 음역한 ‘고르’를 사용하였고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우리말 단위 ‘섬’을 사용한 것과 달리 『새한글』에서는 현대의 단위 ‘리터’로 환산하였습니다.
- (3) 『개역개정』에서는 포도주와 기름의 단위로 히브리어를 음역한 ‘밧’을 사용하고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우리말 단위 ‘말’을 사용한 것과 달리 『새한글』에서는 현대의 단위 ‘리터’로 환산하였습니다.

3.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 (1) 『새한글』에서 원문 번역에 충실하기 위하여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과 달리 원문에 있는 **בָּרֵךְ**(베히네)를 ‘보십시오’로 번역하였습니다.
- (2) 『개역개정』과 같이 히브리어 단위를 음역하여 밀 이만 고르, 보리 이만 고르라고 번역한다면 현대 일반 독자들은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포도주 이만 밧과 기름 이만 밧도 마찬가지로 ‘밧’이라는 단위는 대부분의 현대 독자들에게 생소합니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음역된 히브리어 단위 ‘고르’와 ‘밧’을 각각 우리말 단위인 ‘섬’과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섬’과 ‘말’은 모두 현대에 보편적으로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은 여전히 ‘섬’이나 ‘말’과 같은 단위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한글』에서는 현대의 일반 독자들이 익숙한 ‘리터’로 환산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레이 프리츠(R. Pritz)가 지은 『성서 속의 물건들』에 따르면 1고르는 리터로 환산하면 220리터이므로(466쪽) 2만 고르는 4,400,000리터, 즉 4,400킬로리터에 해당합니다. 또한 1밧은 22리터에 해당하므로 2만 밧은 440,000리터, 즉 440킬로리터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고르’와 ‘밧’을 각각 ‘섬’과 ‘말’로 번역하였는데 1섬은 리터로 환산하면 180리터, 1말은 리터로 환산하면 18리터이므로(위키백과) ‘고르’와 ‘밧’을 각각 단순히 ‘섬’과 ‘말’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3.4. 『새한글』 역대하 2:10의 가르침

이 절의 첫 단어, יְהִינָה(베히네)는 문맥에서 번역을 생략해도 되는 단어로 보이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이 יְהִינָה(베히네)의 번역을 생략한 것과 달리 『새한글』에서는 ‘보십시오’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솔로몬이 히람의 일꾼들에게 밀, 보리, 포도주, 기름을 분명히 주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히람에게 받은 도움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역대하 6:16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וַעֲתָה יְהוָה אֱלֹהֵי יִשְׂרָאֵל שְׁמֹר לְעִבְדְּךָ דָּוִד אֲבִי אֲשֶׁר דָּבַרְתָּ לוֹ לֵאמֹר לֹא יִפְרֹת לְךָ אִישׁ מִלְּפָנַי יוֹשֵׁב עַל-כִּסֵּא יִשְׂרָאֵל רַק אִם-יִשְׁמְרֵנוּ בְּנֵיךָ אֶת-דִּרְכָּם לִלְכֹּת בְּחֹרְתִי כִאֲשֶׁר הִלַּכְתָּ לִפְנֵי:
『개역개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 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 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 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새번역』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마 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

『공동개정』	<p><u>법대로 살기만 하면,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u>’ 하고 약속하신 것을, <u>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u></p> <p>그러니 이제 <u>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u>,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리신 약속, ‘<u>네 후손들이 내가 가르쳐준 길을 벗어나지 않고 너처럼 내 앞에서 살면, 네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기지 아니하리라.</u>’ 하신 말씀을 <u>지켜주십시오.</u></p>
『새한글』	<p>이제, <u>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u>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를 위해 <u>지켜 주십시오.</u>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u>너를 생각해서 나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앉을 사람이! 너의 자손들이 나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말이다, 네가 나의 앞에서 걸었던 것처럼!</u>’</p>
ESV	<p>Now therefore, <u>O LORD, God of Israel, keep</u> for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what you have promised him, saying, ‘<u>You shall not lack a man to sit before me on the throne of Israel, if only your sons pay close attention to their way, to walk in my law as you have walked before me.</u>’</p>
NET ²	<p>Now, <u>O LORD God of Israel, keep</u> the promise you made to your servant, my father David, when you said, ‘<u>You will never fail to have a successor ruling before me on the throne of Israel, provided that your descendants watch their step and obey my law as you have done.</u>’</p>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위의 번역본들이 보여주듯이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과 비교할 때 『새한글』의 새로운 점은 최대한 히브리어 어순을 따라 번역한 것입니다.

(1) 먼저 호격으로 번역되는 부름의 대상에 대하여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에서는 각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로 번역한 반면 『새한글』에서는 히브리어 אֱלֹהֵי יִשְׂרָאֵל(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의 순서 그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새번역』에서는 히브리어 어순을 따랐지만 אֱלֹהֵי(아도나이를

‘여호와’가 아닌 ‘주’로 번역하였습니다.

(2) 호격 뒤에 나오는 명령형, **וְנִצַּח**(세모르)도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번역한 것과 달리 『새한글』에서는 순서를 따라 앞부분에서 번역하였습니다(‘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를 위해 지켜 주십시오.’).

(3) 『새한글』에서는 여호와와 말씀 인용하는 부분도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을 따라 ‘너를 생각해서 나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앉을 사람이!’로 번역하였습니다. 반면에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모두 히브리어 어순을 변경하여 각각,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네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기지 아니하리라.’로 번역하였습니다.

(4) 이 절의 뒷부분에 ‘~하기만 하면’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אִם יֵרָא**(라크 임)이 이끄는 조건절(‘너의 자손들이 나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말이다’)은 『새한글』에서는 원문의 어순을 따라 이 절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지만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히브리어 어순과 달리 조건절이 각각 앞으로 이동되어 번역되었습니다.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개역개정』), ‘네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새번역』), ‘네 후손들이 내가 가르쳐준 길을 벗어나지 않고 너처럼 내 앞에서 살면’(『공동개정』).

(5) 원문에서 역대하 6:16의 맨 마지막 절, **כְּאֲשֶׁר הִלַּכְתָּ לִפְנֵי**(카아셰르 할라크타 레파나이, ‘네가 나의 앞에서 걸었던 것처럼!’[『새한글』])도 『새한글』에서만 원문의 어순을 따라 맨 마지막에 위치시켰고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절의 앞부분으로 끌어와 각각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개역개정』),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새번역』), ‘너처럼 내 앞에서 살면’(『공동개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4.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새한글』의 주요 번역 원칙 중 하나는 최대한 원문의 어순을 반영하여 번역하는 것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원문에서 어순의 중요성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 문장이라도 많은 경우 어순에 따라 강조점

이 달라지기 때문에 번역에서도 그 어순을 반영할 때 비록 번역된 문장이 덜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본문의 강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데 용이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대하 6:16은 『새한글』이 기존의 다른 한글 번역본들보다 원문의 어순을 충실히 따라 번역한 역본임을 잘 드러내 주는 절입니다.

4.4. 『새한글』 역대하 6:16의 가르침

(1) 히브리어 명령형 שְׁמֹר(세모르)를 번역함에 있어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שְׁמֹר(세모르, ‘지켜 주십시오’)를 이 절의 뒤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새한글』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에 따라 שְׁמֹר(세모르)를 앞에서 번역함으로 여호와께 약속을 지켜 주시길 간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새한글』에서는 ‘너를 생각해서 나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앉을 사람이!’라고 번역함으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보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לאֲכַלֶּה(로 일카레트, ‘그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가 인용문에 맨 앞에 나와 왕위에 앉을 사람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한 번역입니다. 한글로 읽을 때에는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의 번역이 더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지만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히브리어 본문은 『새한글』에 더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역대하, 번역, 해설, 현대어.

New Korean Translation, 2 Chronicles, Translation, Explanation, Modern Language.

(투고 일자: 2025년 3월 3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3월 29일)